



JARA NEWS

June 2017, No. 112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na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오른쪽부터) 구마모토 시의 미야모토 구니히코(宮本邦彦) 재무국장, 이미이 유지 회장, 기타지마 소쇼 사장

JARA그룹, 매출 단위로 첫 정례회

JARA 그룹(이미이 유지 회장)은 22일, '제1회 JARA 그룹 카테고리별 정례회'를 도내의 연수 시설에서 개최했다. 종래의 블록 단위에서 매출 단위로 실시하는 새로운 정례회에서 당일은 약 80명이 참가.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매출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과 진척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 연합(JARA)의 다카하시 사토시(高橋敏) 이사장의 특별 강연, (주)JARA의 기타지마 소쇼 사장의 장표(帳票) 스테디 등도 실시하였다.

카테고리별 정례회는 이번 연도의 기본 방침에 따른 것. 같은 규모의 회사가 유사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과제를 공유하며, 개선, 성장을 위한 정례회를 실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7, 10월에도 개최한다.

정례회에서는 다카하시 이사장의 '적기는 지금이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도 있었다. 다카하시 이사장은 강연에서 "재활용 사업자에게 남겨진 유예는 2년밖에 없다."라고 지적. 선택되는 기업과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이 확실해지는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성장만이 아닌 발전과 진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장표(帳票) 스테디에서는, 기타지마 사장이 매출과 구매, 이익 분석표의 샘플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해설했다. 하루하루의 사업 활동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와 타사의 차이가



확인 가능함으로, 그룹의 동료에게 상담하거나, 조언을 받기 위한 재료로도 사용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4월 27일)

JARA그룹, 구마모토 지진 부흥의 일환으로 기부금

구마모토(熊本)에 마음을 전하며 - JARA그룹(이미이 유지(今井雄治) 회장)과 JARA(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中央区)는 최근, 발생으로부터 2년째를 맞이한 구마모토 지진의 부흥 지원의 일환으로서 의연금을 기부했다. 앞으로도 "지진 재해의 기억과 부흥에 대한 마음을 풍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한의 지원을 해 나가고 싶다"는(이미이 회장) 생각이다.

기부금은 60만엔. 구마모토 시가 실시하는 학교나 도로의 재건 등 재해 복구, 부흥 사업의 지원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구마모토 현민의 상징인 구마모토 성의 부흥의 일환이 된다면"(기타지마 사장)이라는 생각에서, 구마모토 성의 복구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모집하는 '부흥 성주(城主) 제도'를 통해서도 기부를 하였다.

JARA는 지진 발생 직후에 회원의 피해 상황을 조사, 또 지원 물자도 보내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4월 27일)

CO2 삭감 수치 (JARA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7년4월

2,535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시, 신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JARA 제휴 리빌드 메이커 소개>

(주) 어니스트, 인재 육성을 강화 리빌드 부품 생산, 개발 인위적 개입

자동차 리빌드 부품 대기업인 어니스트(나가츠카 마사요시(永塚政義) 사장, 사이타마 현 요시카와 시(埼玉県 吉川市))는 리빌드의 생산·개발 부문의 인재 육성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한다. 자동차 업계 전체에서 인재 부족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현재, 장래의 인재 확보를 내다보고 올 6월에 사이타마 현 내의 고등학교나 대학 등의 방문을 시작하여, 자사와 재활용 업계의 매력을 강력히 호소한다. 학교 방문은 이번, 동사로서는 첫 대응책으로, 재활용 업계 전체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자사의 모집 인원수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목표이다.

정비 업계 등과 마찬가지로, 재활용 업계에서도 인



특별강연에서 참가한 각사를 격려하는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 연합의 다카하시 사토시 이사장

각사의 구입·매출 데이터 활용에 대해 해설하는 (주)JARA의 기타지마 소쇼 사장

재 부족이 눈에 띈다. 업계 안에서는 복리 후생 제도의 충실화와 휴일을 늘리는 등, 직원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갖추는 재활용 사업자도 있다. 어니스트에서도 작년 6월에 연간 휴일 수를 95일에서 106일로 늘리는 등, 직장 환경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인재 확보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올 4월에 신규 졸업자 3명이 입사했다. 종래, 인재 확보에서는 신문 등의 매체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거나 학교에서의 구인표의 게시 등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인재 육성에 더욱더 주력하는 관점에서, 올 6월에도 학교 방문을 시작했다. 자사의 인사부가 현 내의 고등학교나 대학 등의 진로 담당자 등을 방문하여, 리빌드의 업무 내용과 재활용 업계의 중요성을 호소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리빌드 부품의 생산·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졸업자를 채용한다. 리빌드 부품은 정비 업계 등에서 품질면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동사는 리빌드 작업의 현장을 접어질 인재 육성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5월 11일)



랜섬웨어에 감염된 PC의 메시지 화면 (IPA의 웹사이트에서)

사이버 공격 혼란이 확산 제 도나 조직적 대책이 급선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대사는 16일,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으로서도, 계속해서 피해 상황의 정보 수집과 주의 환기에 노력해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은, 첨부 메일을 통한 경유 등으로 감염되어, 암호화 데이터의 복구와 맞추어 그 대가를 요구하는 ‘랜섬(인질 대금)웨어’라고 불리는 비교적, 단순한 수법이지만, 그런데도 오래된 OS(오퍼레이팅 시스템) 등의 취약성을 노려 혼란이 확산되었다. IoT(사물 인터넷) 화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취약성이 가시화 되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제도나 조직적인 대책도 급선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공격은, 지난해 말부터 유럽이나 러시아, 인도 등에서 잇따라 발각. 보슬트 미 대통령 보좌관에 의하면, 15일 시점으로 감염 피해를 본 것은 150개국의 약 30만 대에 달한다. 영국에서는 국민보건 서비스의 관련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많은 병원에서 정보시스템이 정지. 환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술이나 치료 등이 공지에 몰렸다. 또한, 미국의 운수 대기업인 페덱스나 스페인의 통신 대기업인 텔레포니카 이외에, 러시아의 내무성이나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 등도 피해를 보았다.

일본 국내에서는, 일요일에 IPA(정보처리 추진기구)가 회견을 통해 주의 환기. 경산성이 소관 단체에 대해 피해 정보의 보고를 요구했다. 피해 정보의 상세한 부분은 “공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사이버 시큐리티과)라고 하며 확인을 피했다. 민간의 JPCERT코디네이션 센터에 의하면, 일본 국내의 감염 사례는 IP 어드레스 베이스로 600군데, 단말기 베이스로 2000대 (13일 오전 현재).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그룹이나 가와사키시(川崎市)의 상하수도국이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관계가 있는 기업과 단체도 포함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닛산자동차의 영국 쉐너랜드 공장도 가동을 정지. 르노도 프랑스 공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정지했지만, 15일에는 안전상의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을 전개. 닛산은 “생산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글로벌 홍보·IR부)라고 말하지만, 수주나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관리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라도,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가 드러났다.

경산성은 ‘사이버 시큐리티 경영 가이드 라인’의 보급에 힘쓰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수법이나 대책 내용을 모아 공유하는 제도를 확충하거나, 사이버 시큐리티 대책에 우대 조치 등을 창설하고 싶다는 생각.

(일간 자동차신문 5월 17일)

국교·환경성, 일반 도로 주행 시험 NOx 규제치 2배 넘어 ‘위법’



국도교통성과 환경성은 20일, 독일 폭스바겐(VW)사의 배기가스 조작을 계기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일반 도로 주행 시험에 대해,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수치가 대상 시험 규제 수치의 2배를 넘는 경우는 위법으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엔진 보호 등 필요 최소한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기능을 완화하는 제어의 범위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했다. 메이커의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VW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토대로, 국도교통성과 환경성이 2015년 가을에 설치한 검토회가 같은 날, 최종 보고안으로 정리했다. 일반 도로 시험은 차량에 ‘PEMS’라고 불리는 휴대용 배기 가스 측정 장비(PEMS, Portable Emissions Measurement System)를 장착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공도를 달린 후 배출 가스치를 측정한다. 검토회는 유럽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일반 도로 시험을 참고로, 차량이나 시험 환경 등의 조건을 상세히 결정했다.

비리의 진원지인 유럽에서는 올 9월에 신형차부터 일반 도로 시험이 본격 도입된다. 대상 시험의 규제 수치와 비교해 2·1배를 넘으면 위법이 된다. 2020년 1월부터는 1·5배를 넘어 더욱더 어려워진다. 한편, 일본은 자국 메이커에 유사한 부정 의혹이 없으며,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에는 엔진을 개량하는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5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시험 물질도 유럽에서는 NOx와 PM(부유 입자상 물질)이지만, 일본은 NOx만으로 한다. 단, 메이커에는 앞당겨 대응을 촉구하며, 시험 물질이나 규제치는 필요에 따라 재검토한다.

지금까지, 메이커 각 회사에 의한 정이나 대책이 달랐던 엔진 보호 등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적용 대상은 디젤 승용차로 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의 디젤 화물차. VW 사와 같은 비리 목적의 제어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한편, 엔진의 높은 부하시나 바깥 기온이 높거나, 표고가 높은 곳을 달리는 등 일정 조건에서 배기 가스 저감 장치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제어를 인정한다.

최종보고에서는 또한, 사용 과정 차를 예고 없이 갑자기 조사하는 골라내서 조사하는 방법(抜き取り調査)(서베일런스)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이나 부정한 제어를 찾는 관점에서 유효로 하며, 두 기관에 제도의 충실을 요구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4월 21일)

토요타 자동차, 호조가 이어지는 프리우스PHV 진가를 묻는 이번 연도

토요타 자동차에 있어 2017년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V) ‘프리우스PHV’의 진가를 묻는 1년이 된다. 2016년도의 세계 판매는 전년대비에서 약3배의 1만3200대. 신형 모델을 투입한 북미와 국내의 판매 총수가 전체의 약98%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환경 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PHV의 판매 증가는 전망되지만 독일 BMW 등 유럽 쪽도 상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토요타는 PHV를 예고 카의 주류에 자리매김했지만 보급의 키를 쥐고 있는 일을 “(세계 판매의) 절반 이상을 판매해 가는”(무라카미 슈이치(村上秀一) 상무 임원) 것을 맡은 국내 판매의 동향에 있다.

토요타는, 전면 개량한 2대째의 신형 프리우스PHV(미국명 프리우스 프라임)를, 북미에서 2016년 가을에, 일본 국내에서 올해 2월에 투입했다. 일본 국내의 월 판매 목표는 2500대이다.

2016년도의 세계 판매 가운데, 일본 국내는 전년대비에서 약7·2배의 6100대, 해외는 약1·6배의 7100대. 해외 가운데에서도 북미는 2·6배의 6800대였다. 선대 모델도 포함되어 있지만, 2016년 4~9월의 세계 판매가 백 몇십 대였던 것을 보면, 2016년도의 90% 이상은 신형 모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1~3월의 세계 판매는 1만1000대로, 그중에서 일본 국내가 6000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 자동차판매협회 연합회(자판연)의 승용차 연료별 판매에 의하면, 1월은 25대였던 것이 2개만에 거의 6000대를 판매한 셈이 된다. 선대 모델의 판매가 약 5년간으로 누계 2만2천 대였던 점에서 보면 경이적인 추세이다.

단지, 발매후 1개월의 누계 수주 대수가 1만2500대로 오른 한편, 등록 페이스는 제자리 걸음으로 보인다. 클린에너지 자동차(CEV) 도입 사업비 보조금에 2016년도의 보조 대상이 4월28일까지로 첫째 등록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보조액 9만6000엔이 2017년도분부터 20만엔으로 배로 증가하기에, 등록일의 연기를 희망하는 수주객도 있었다고 한다. 등록 페이스는 앞으로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점에서도 수주 등 판매 시작의 움직임의 평가는 나뉘어진다. “토요타의 판매량을 생각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는 목표치 달성의 노력 부족의 지적이 있는 한편, “프리우스처럼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는 대표자도 있다.

올해 3월에 유럽에서도 신형 프리우스PHV의 투입을 순차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판매 대수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부터. 이번 봄에는 한국과 대만에서도 투입을 계획한다. 미국은 SUV나 픽업트럭의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판매 증가 추세의 유지는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하이브리드 차(HV)에 이어 PHV에서도 보급에 앞지를 수 있는가. 일본 국내에 부여된 그 역할은 커다랗다.

(일간 자동차신문 5월 18일)

KOBELCO

We Save You Fuel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コベルコが提案する 新しい考え方

マルチ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の解体以外にも廃家電などの金属製機器の解体およびさまざまな複合廃棄物の解体・分別作業が可能です。

自動車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に含まれる素材の分別作業がスピーディーに行えて希少金属資源の回収が可能です。



SK135SRD



SK210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新构想源于神钢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各种复合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SK210D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素材的分类作业，能够回收稀金属资源。

SK210D



成都神钢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新构想源于神钢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进行各种复合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SK200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部素材的分类作业，得以回收稀有金属资源。

SK200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

새로운 발상은 KOBELCO에서

멀티 해체기

용도 폐기된 자동차의 해체 외에도 폐가전제품 등 금속제 기기의 해체 및 다양한 복합 폐기물의 해체·분리작업이 가능합니다.



SK135SR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135SR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210D



Car-Dismantling Machine

Car-Dismantling Machine efficiently separates and sorts raw materials in end-of-life vehicles and is able to recover rare earth metals.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